

# 교육부, 마이스터고 6곳 신규 지정 첨단산업 중심 직업계고 재편 속도

반도체분야 2개교·AI분야 4개교  
학교당 50억 지원... 2028년 운영  
삼성, SK 등 국내 주요기업 참여

반도체와 인공지능(AI) 등 첨단산업  
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직업계고등학교  
재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. 교육부는 특성  
화고 6곳을 반도체·AI 융합 분야 마이스  
터고로 새로 지정해 2028년부터 운영하  
기로 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K  
T, 네이버클라우드, 한전KDN 등 반도체  
·AI·에너지·로봇 분야 기업과 기관이  
주요 협약기업으로 참여해 교육과정과  
현장 실습 연계에 나설 예정이다.

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를 산  
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로  
신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. 이번에 지  
정된 학교들은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 
2028년 3월 신입생을 받는다.

이번 신규 지정은 첨단산업 분야에 집  
중됐다. 반도체 분야 2개교, AI 융합 분  
야 4개교다. 반도체 분야에는 부산전자공  
업고와 (가칭)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 
지정됐다. 부산전자공업고는 반도체공정  
장비과와 반도체소재제조과를 운영하며,

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는 반도체제조공  
정과와 반도체장비과를 운영할 예정이  
다. 두 학교 모두 정원은 96명이다.

신규 지정 학교들은 반도체 공정·장비,  
이차전지 제조, 에너지 제어, 데이터산업  
인프라, 로봇 개발·제어 분야 실무 인력  
양성을 목표로 한다. 부산전자공업고와  
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는 반도체 장비·공  
정 시험원, 품질관리 시험원, 제조장치 조  
작원, 장비 정비·설치 인력 등을 키운다.  
이리공업고는 이차전지 전극 제조와 조  
립, 총방전, 품질검사 인력을 양성하고,  
목포공업고는 발전·배전 장치 조작, 에너  
지 제어, 공조·전기계측 분야 인력을 기른  
다. 해남공업고는 데이터베이스 운영, 데  
이터 분석, 산업 인프라 관련 기술 인력  
을, 문경공업고는 로봇 설치·정비, 로봇  
개발·제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.

협약기업에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 
삼성SDS, 한전KDN, 한국중부발전, K  
T, 네이버클라우드, 대동로보틱스 등 반  
도체·AI·에너지·로봇 분야 기업과 기관  
이 포함됐다.

다만 신규 지정 6개교 가운데 3개교는  
조건부 동의 대상이다. 교육부 지정위원  
회는 부산전자공업고, 용인반도체마이스

터고, 이리공업고 등 3개교에 대해서는  
동의 결정을 내렸고, 목포공업고와 해남  
공업고, 문경공업고 등 3개교는 조건부  
동의로 심의·의결했다. 조건부 동의 학교  
는 오는 7월 2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에  
대한 심의를 거쳐 9월쯤 최종 지정 동의  
여부가 결정된다. 신규 지정 학교에는 학  
교당 2년간 총 50억원이 지원된다.

기존 마이스터고의 지정 분야 변경도  
이뤄졌다. 올해는 3개 마이스터고가 지정  
분야 변경을 신청했고, 지정위원회 심의  
를 거쳐 모두 승인됐다. 인천전자마이스  
터고는 기존 전자·통신 분야에 AI를 추가  
하고, 군산기계공업고는 조선·기계에서  
AI·로봇 분야로 바뀐다. 경북바이오마  
이스터고는 식품품질관리에서 바이오 분  
야로 지정 분야를 변경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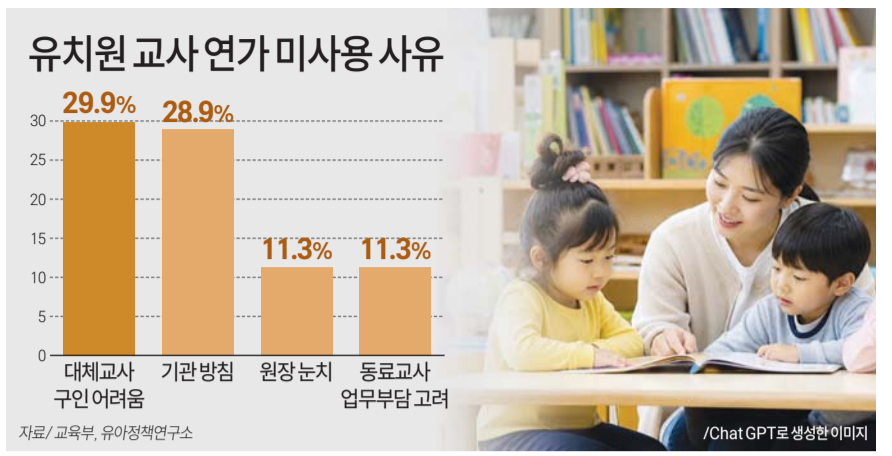
교육부 관계자는 “마이스터고는 산업  
계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해 현장  
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직업교육 모델”이  
라며 “AI 전환과 첨단산업 확산에 맞춰  
학교별 지정 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 
실습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  
하겠다”고 말했다.

/이현진 기자

lhj@metroseoul.co.kr



metro



## 정부,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확대

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체계 정비

독감 증상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던  
사립유치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,  
정부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체계  
를 손보기로 했다. 앞으로 사립유치원 교  
사가 병가를 내면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  
없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 
이 추진된다.

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 
내용을 담은 ‘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 
개선 방안’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.  
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  
라도 수업 공백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  
고, 아픈 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  
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.

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교  
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2027년  
까지 개선해 병가의 기간이나 종류와 관  
계없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. 병가 의  
예도 공가, 특별휴가, 자격·직무연수, 출  
장 등 교사 부재 상황에 대한 지원 범위도

단계적으로 확대한다. 대체인력 인건비  
지원과 인력 직접 지원을 병행해 유치원  
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  
안도 추진한다.

긴급한 교사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순  
회교사 배치 근거도 마련한다. 교육부는  
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 
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 
있도록 할 방침이다. 순회교사는 유치원  
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  
치원을 방문해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 
맡는다. 순회교사 외에 단설유치원 등 거  
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  
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한다.

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방안도 포  
함됐다. 교육부는 공·사립유치원 교원 간  
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처우개선 지원  
금을 현재 88만원에서 2027년 90만원까  
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, 장기근속수당  
도 현재 6만원에서 2027년 8만원까지 올  
리는 방안을 추진한다.

/이현진 기자

## 인사동 한옥 규제완화... 신축·개보수 쉬워진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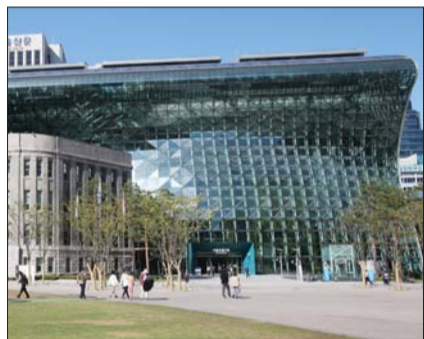
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고시  
한옥 건축면적 기준 70% → 50%

서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 
고쳐 짓는 기준이 완화된다. 한옥 인정 기  
준은 건축면적의 70% 이상에서 50% 이  
상으로 낮아지고,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  
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.

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인사  
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’을 지난 11일  
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. 대상지는 종  
로구 경운동 90-18번지 일대 12만4068  
㎡다.

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 
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.

이번 재정비안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  
와 개발 기준 단순화가 핵심이다. 기존에  
는 ‘인사동 한옥’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  
면적의 70%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



서울시청 전경.

했지만,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  
을 유지하는 경우 50% 이상만 한옥으로  
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.

지붕 재료 기준도 완화된다. 기존에는  
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앞  
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  
와도 허용된다. 구조 기준 또한, 지상부  
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던 기존 기  
준에서 벗어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%

이하, 최대 15개 이하 범위에서 다른 구조  
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 
면제된다. 도심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가  
어려워 한옥 건축을 추진하기 힘들었던  
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.

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%  
이하로 유지하되, 개방형 녹지 조성, 공  
동개발, 지역특화 목조건축, 권장용도도  
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용적률을  
최대 600%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. 상한  
용적률은 기존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  
용할 수 있다.

건폐율은 기존 60%에서 완화된다.  
전통문화 보호·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 
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고 1개 층을 추  
가로 지을 수 있다. 한옥을 건축할 경우  
건폐율은 최대 90%까지 적용된다.

/이현진 기자

## 남양주-창저우, 우호협력 강화 방안 논의

남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 
이틀간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대표단이  
방문해 지역 내 문화·스포츠 주요 시설을  
둘러보고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  
다고 밝혔다.

이번 방문에는 장평취 창저우시 부  
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함께했으  
며, 14일 정약용편그라운드를 시작으  
로 정약용유적지와 이석영광장 내 복  
합문화공간 ‘리멤버1910’을 차례로 방  
문해 남양주시의 역사·문화 자원을 체

험했다.  
이어 다산동 정약용도서관을 찾아 도  
서 기증식과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으며,  
남양주시와 도서관 교류 확대 방안에 공  
감대를 형성했다.

주광덕 시장은 “양 도시가 문화·교육  
분야와 축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분야  
까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”  
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  
어가겠다고 말했다.

/남양주(경기)=김용택 기자 mk4303@

## 경기도,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

정책 브랜드 ‘세금톡톡’ 선배

경기도가 체납세금 납부 지원과 실태  
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 
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전 시군  
으로 확대 운영한다. 이에 따라 6월부터

시군별 채용이 본격화된다.

도는 올해 총 576명의 체납관리단을 채  
용할 계획이다.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  
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  
을 확인하고 분납 안내, 복지 연계 등 맞  
춤형 지원을 제공한다. 특히 생계형 체납

자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해  
긴급 생계비·주거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 
와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.

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정책 브랜드  
(B.I.)인 ‘세금톡톡’도 새롭게 선보였  
다. ‘찾아가서 톡! 체납고민 톡!’이라는  
슬로건 아래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활  
동을 친근하게 알리고 도민 인지도를 높일  
계획이다.

/경기=김대의 기자 dykimi@

오늘의 날씨

6월 17일 (수)  
음력: 5월 3일

수도권 날씨  
22 ~ 32°C

운동 지수: [Progress bar]

빨래 지수: [Progress bar]

세차 지수: [Progress bar]

외출 지수: [Progress bar]

해돋이: 05:10 | 해질: 19:56

지역별 기온: 연천 18/30, 동두천 20/31, 가평 18/31, 파주 19/31, 서울 22/32, 양평 19/31, 인천 21/30, 수원 22/31, 용인 22/31, 평택 20/32

자료제공: Kweather 케이웨더(주) www.kweather.co.kr

- ▲ 이란 매체, 종전 MOU 초안 공개... 미사일 문제 배제
- ▲ 이탈리아서 ‘중국계 비밀은행’ 적발... 마약조직·마피아 고객



- ▲ 美 전략폭격기 B-52 이륙 직후 추락... “탑승 8명 전원 사망”
- ▲ 미국의 쿠바봉쇄로 심각한 인명 피해·의료 시스템도 붕괴

- ▲ 英,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... 美 빅테크·트럼프 반발
- ▲ 스페이스X? 중국도 올해 10개 상업 항공 우주 기업 IPO 목표